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완료

기자 설명회 (모두발언)

2021.11.29.(월), 11:00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그간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평 캠프마켓 A구역내 다이옥신 오염된 토양이
완전하게 정화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최된 민관협의회 제16차 회의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의 정화검증 결과,

당초 정화목표치인 100피코그램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 2.18피코그램으로 정화함으로써
정화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5일, 캠프마켓 인포센터를 개소하고

오랜 담장을 허물며 개방 확대의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발암물질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의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정화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017년 캠프마켓 내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과정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었고,
검토와 준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정화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다이옥신의 대기확산을 원천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정화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입니다.

시민분들과 전문가,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와 부평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운영, 과학적인 검증,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애써주신 민관협의회 이재영 의장님과
김창균 교수님 등 여러 전문가 분들,
문부 회장님 등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준비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국회 홍영표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
시의회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캠프마켓의 향후 100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제 조병창 시기부터 이어진 캠프마켓 역사문화뿐 아니라,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대한 해결과정도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백서발간 등을 통해 기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분들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캠프마켓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